

실물경제 국제유가 민감도 감소

국제금융센터, 1987-97년 -0.14% ... 주가지수는 과민반응

실물경제의 유가민감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.

그러나 종합주가지수의 국제유가 민감도는 강화되고 있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제금융센터가 5월27일 발표한 [한국경제의 유가민감도 분석] 보고서에 따르면, 상장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에 미치는 유가(Dubai유 기준)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1998-2001년 유가민감도는 마이너스 0.03%로 1987-97년의 마이너스 0.14%에 비해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류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생산비용 감축 노력과 산업활동 중 제조업 비중의 축소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 등이 실물경제의 유가민감도를 낮춘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.

1990년대 초반 이후 실물경제의 원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, 전체 에너지 소비규모 대비 석유의존도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, 종합지수의 유가민감도는 마이너스 0.84%에서 마이너스 2.68%로 확대돼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.

국제금융센터는 분기 평균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 종합지수는 전분기 대비 2.68%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, 상장기업 경상이익률의 유가민감도를 감안하더라도 종합지수가 실물경제에 비해 유가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.

한편, 국제금융센터는 2002년 초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2002년 점진적인 상승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.

중동긴장과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수요를 이끌어내고 OPEC(석유수출국기구)의 감산공조에 따른 공급조절을 배경으로 설명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5/ 29>